전통유과 팔아 어려운 이웃 도와…

道伴의 향기

(주)공덕 마을기업 도반들

(주)공덕은 사회복지법인 공덕향서 수탁 운영중인 공창종합사회복지관서 만든 마을기업이다. 전통유과와 쌀조청, 무조청 등 다양한 식제품을 생산하며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된 부산 금곡동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공덕'에서 활동하는 불자들은 전통 식품 만드는 일 뿐 아니라 아파트 내 소외된 이웃을 위한 무료급식과 도시락 만들기 등 봉사활동을 펼치고 수행에 임하고 있다.

부산=하성미 기자



한국은 OECD 가입국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자살자 중 매월 2명이 바로 영구임대아파트에서 나온다고 한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은 대부분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 주민, 장애인 등 소외계층. 이들을 대상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봉사로 희망을 전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공덕 마을기업에서 활동하는 도반들이다. 10월 6일 부산 금곡동에 위치한 영구임대 아파트에서 나눔에 앞장서는 공덕의 주인공들을 만났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원칙

아파트에는 외로움과 절망의 분위기가 흘렀다. 1100세대 중 독거어르신이 600세대에 달했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장애인 가정으로 이뤄져 있었다. 아파트 중간에 위치한 상가에는 벌써 술판이다. 낮부터 술을 마시고 앉은 그들에게는 무기력함이 전달됐다.

"알콜중독자입니다. 그래도 정말 많이 줄어들었어요. 아침부터 술을 마시고 싸우는 일이 대다수인데 많이 사라진 편이죠. 여기 상가도 많이 밝아지고 정리 됐어요. 그 전에는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어둡고 정리가 안 되서 찾는 이가 없었죠."

공창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상가 2층에 위치한 '(주)공덕'을 향해 들어갔다. 밖에 무기력한 모습과는 달리 열심히 전통식품 유과를 만드는 손길로 분주하다. 일에 집중하는 모습에 말을 걸기도 쉽지 않다.

'공덕'은 사회복지법인 공덕향이 운영하는 공창종합사회복지관에서 태동 된 마을기업이다. 매일 쌀과 엿기름으로 쌀조청을 만들어 유과와 강정, 견과류 영양바, 무조청 등을 만들어 세상에 내놓는다.

부산 금곡동 영구임대아파트 한 가운데 위치한 '공덕'에서 바삐 손을 움직이던 어르신들이 일을 하다 살짝 웃는다. 바쁜 손은 내일을 위한 희망을 담았고 눈빛은 자비로 가득 차 있다.

어르신들은 웃음을 담아 기자의 얼굴을 쳐다보며 "부처님 말씀 전하는 기자냐?"며 반갑게 손을 잡아 준다. 절망감과 무기력함이 느껴졌던 영구임대아파트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어떻게 조청을 만드냐'는 질문에 그들은 '원칙'을 내세웠다. 이익보다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다. 바른 먹거리에 정직함을 더한다는 묵직한 원칙은 2013년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굳건히 지켜지고 있다.

"엿기름을 40% 정도를 넣어요. 그 수치가 가장 맛있기 때문이죠. 전혀 설탕도 안 넣고 제작하니 사실 기업적 이익으론 크게 기대할 수가 없어요. 40%에서 조금만 줄이자면 사실 보살님들이 펄펄 뛰어요"라고 박신자 공창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 설명을 이어갔다.

"방부제도 일체 넣지 않아 관리도 쉽지 않아요. 이 원칙은 이사장이신 명현 스님과 이곳에 문을 열 때 함께 시작하신 분들의 원칙에서 나온 것입니다. 일하시는 이분들이 더 힘드실 텐데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설명에 따르면 현재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조청에 들어간 엿기름의 양이 타사는 5% 혹은 많으면 10% 정도 들어간다고 한다. 원칙을 고수하고 정성을 다하기에 성장도 느렸다.

마을 기업 '공덕' 신화

유과 등 판매해 수익 창출

저소득층 일거리 제공

원리원칙 고수해 맞춤 생산

수행=생산 함께하는 공동체

"처음에는 만들어 수좌 스님들과 여러 사찰에 공양을 많이 올렸어요. 그 때는 이익 창출보다는 이곳에 일자리를 만들고 좀 더 활기차게 활동하도록 돕는 것이 주목적이었어요. 당시 공창복지관에 쌀도 많고 급식 후 밥도 있어서 이것을 사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구요. 그 때 봉사자로 활동하시던 이분들이 적극 아이디어를 제안하셨어요."

박신자 관장은 시작 당시 취지를 설명하며 희망을 위한 마을기업이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처음에는 녹록지 않았다고 했다.

"어르신들이 어릴 적 경험들은 있으셨지만 이것을 정확한 수치로 계산하고 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 착오를 거쳐야 했어요. 전문교육까지 따로 받고 오셔야 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 전문가이십니다."

현재 '공덕'에서 만든 제품들은 롯데 동부산점을 비롯해 하나로마트, 하회마을 등 유통업체를 통해 소개되고 있다. 입소문이 나 수요가 늘어 매년마다 명절에는 300여명의 일손이 붙어 작업을 거들어야 할 정도다.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되기에 밤잠을 줄여야 하지만 작업을 위해 수고하는 분들은 원칙을 놓지 않는다.

책임을 맡고 있는 하성례(69) 보살은 "명절에는 쌀 20kg 50개를 사용해요. 1000kg을 사용하니 엄청난 양이죠. 고아서 강정과 유과에 바르고 하루 종일 튀기고 바르는 일을 반복해요. 일이 고되서 쉬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하루를 마무리 할 때 떳떳하고 싶어요. 매일 밤 스스로 부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돌이켜 볼 때 바르게 살았는지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고 싶은거죠. 그 원칙은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지키고 싶어요. 세상을 바꾸는 힘은 작은 원칙이라고 해도 정직하게 지키는 힘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희망 담금질하는 조청, 세상 밝게

조청을 만드는 일이 쉬워 보이지 않았다. 찐득해진 엿기름을 뜨거운 불 위에서 큰 주걱으로 젓는 건 힘이 넘치는 청년들이 붙어 해도 어깨가 떨어 질 듯 아플 듯 하다.

힘들지 않냐는 질문에 하성례 불자는 "일을 하지만 일이 아니죠. 일과 수행이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구분하나요? 힘이 든다고 수행을 안 할 건가요? 절을 할 때 올라올 때 숨을 마시고 내려갈 때 숨을 내쉬듯 일이란 당연한 거죠. 단지 육체적으론 힘이 들지는 모르지만 힘들다는 생각을 안 할 뿐이죠. 저희에겐 수행이 됩니다"라고 답했다.

장재필(79) 불자도 힘들기보단 오히려 힘을 얻는다고 했다.

"제가 나이가 좀 많아요. 이곳에서 일을 하기 전에는 허리 디스크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 마음이 편안해져서인지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아픈 곳도 사라졌어요. 시간도 잘 가고 하루하루 힘이 넘칩니다."

'공덕'은 단순한 마을 기업을 넘어 사랑방이 되고 있었다. 부산 금곡동은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 된 곳으로 유명하다. 공창종합사회복지관이 위치한 곳에는 1100세대 가운데 독거노인이 600명 그리고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 하고

잘하는 명상은 나의 운명을 바꾸어 줍니다

병이나, 괴로움, 번민 등은 모두 자연법칙을 위배하는데서 일어납니다.
명상을 통하여 모든 자연법칙들의 근원인 순수의식을 확립하면
마음과 몸은 자동적으로 단단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에너지의 흐름이 원활하여 생리계통이 바뀌게 되며, 그후 문제 없고
완전한 건강과 행복을 누리며, 빠르게 발전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 첫째주 (토요일) : 나를 귀하게 하는 명상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 둘째주 (토요일) : 자기 능력을 일깨우는 창조명상〈취업준비 직장인 및 상업인, 사업인 등〉
◆ 셋째주 (토요일) : 사랑을 얻는 행복명상 〈결혼, 이혼, 재혼을 앞둔 이들을 위하여〉
◆ 넷째주 (토요일) : 귀한 자녀를 얻는 태교명상
〈뇌세포의 70%는 엄마의 뱃속에서 만들어 지며, 스트레스는 태아의 뇌 크기를 줄인다〉

◆ 문 의 : 작은 마음선원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로 240번길 32
◆ 전 화 : 010-8673-7558 / 010-5658-2657 / 031-335-2568
◆ 매주 토요일 : 오전 11시 ~ 오후 5시

삶에 대하여 …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자신을 키우고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 보세요.

늘 피곤하고, 팔, 허리, 어깨가 쑤시며 깊은 잠 못자는 여러분을 위한 희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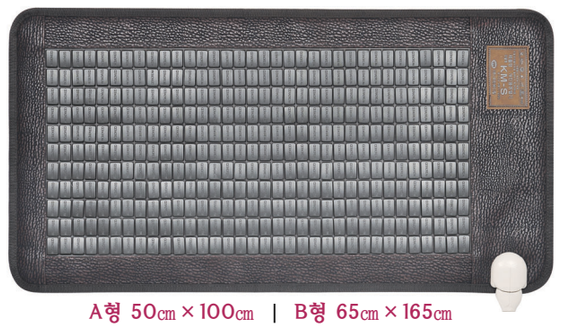
귀사문석(貴蛇炆石) 만능 미니 온열매트!

※ 귀사문석 온열매트는 근육통완화를 위한
식약청 의료용구 제조허가번호 제426호, 품목허가 제09-651인 의료기기 입니다.

생명의 빛! 원적외선이
93% 이상방출되는 방안의 숯가마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있는
냉기(冷氣)를 해소하자.

기도할 때는 좌복으로,
취심시에는 온열 매트로!!

귀사문석 374개로 구성



A형 50㎝ × 100㎝ | B형 65㎝ × 165㎝

올 겨울 추위는 방안의 숯가마 찜질방(전자파완전 차단)과 함께!

생명의 빛 원적외선

귀사문석 온열매트에서는 93%이상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우리몸의 피부속으로 50㎜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준다. 그리고 피하심충의 온도상승, 미세혈관의 확장, 신진대사의 강화, 부인병, 신경계 질병, 노인성질환, 어깨결림, 허리통증완화, 장속의 노폐물, 중금속 배출등에 탁월한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또한 귀사문석은 항균효과 86%, 항곰팡이 억제력은 거의 100%이며, 냄새 제거 능력도 탁월하다.

■ 판 매 원 : 선재생활건강(주) /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580-1 리베로빌딩 5층
■ 문의전화 : 031)595-8767, 010-4399-4326 선재생활건강(주)
■ 입금계좌 : 농협 355-0014-5055-43

“좋은 음식 만드는 것이 ‘공덕’”



공덕 도반들이 복지관에서 몸이 편치 않은 어르신을 위한 위로와 격려 봉사활동을 펼치는 모습. 이들은 물품 생산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곳곳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공창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덕 소속 어르신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봉사 전 부처님께 기도하는 모습.



공덕 도반들이 제품 포장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수익금은 복지관 무료급식 및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쓰인다.

있다. 그곳의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폐지를 줍고 미용실에서 머리에 감는 종이를 펴며 일당으로 2000원, 3000원 등을 받는다. 하지만 그들은 ‘공덕’에 들러 일을 돕고 행복해한다.

“사랑방이 되는 거죠. 그냥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야기를 풀어내며 함께 웃고 즐거워합니다. 이런 공간이 이 아파트 가운데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이 된다는 어르신들이 있을 정도예요.”

박신자 관장은 경제적인 관점으로 그곳을 바라보면 안 된다고 했다. 희망을 주는 거점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이 ‘공덕’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이다.

불심으로 모여 봉사로 회향

‘공덕’에서 활동하는 어르신들은 모두 불자로 지금 이사장인 명현 스님과 초대 이사장 심산 스님과의 인연으로 이곳을 찾았다. 특히 하성례 불자는 ‘공덕’ 뿐 아니라 1994년 12월 공창사회종합복지관이 문을 열 때부터 함께 활동했다.

“처음에 부산 부전동에 있는 불지사 포교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당시 주지 스님이 지금 홍법사의 심산 스님이셨는데 개관을 하신다는 소식과 함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발을 들였죠.”

처음 개관할 때부터 하성례 불자는 공창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매일 300여명의 독거 어르신을 위한 무료급식을 도왔다. 공창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부설 지혜어린이 집에 이어 무료급식까지 소외 받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22년간 묵묵히 봉사하고 있다.

이뿐 만이 아니다. 공덕도반들은 매일 복지관에서 일과를 시작하기 전 직원을 불러 예불을 집전한다. 간단히 삼귀의와 반야심경으로 문을 연 하루는 직원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보람을 일깨우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박선희 공창종합사회복지관 부장은 “하루에 한번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고 제가 하는 일이 어떤 보람이 있는지 되새기는 것은 큰 힘이 된다. 희망이 없고 암울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 보람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매일 아침 목탁을 들고 조례를 하는 모습을 뵈면 정말 감사드린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박신자 관장은 “아침 조회를 예불로 드린다.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며 영구임대아파트에 계신 어르신들과 식구들이 모두 건강하시길 기도한다. 업무 때문에 하루 빠지면 제 스스로 자세가 달라지는 것 같아 조심스럽다. 여기 보살님들은 예불에 빠짐이 없다. 이분들은 봉사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저희에게는 언제나 스승처럼 느껴진다”라며 설명을 덧붙였다.

수행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밑받침이 된다는 것이다.

하성례 불자는 매일 새벽 늦어도 3시에는 일어난다고 했다. 일이 고되어 고단한 하루에도 변함이 없다. 혼자 수행을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복지관에 나온다. 하루 일과를 그 누구보다 일찍 시작하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불을 켜두고 일을 마무리한다.

소외계층돕기 ‘앞장’

300여 어르신 복지관서 무료급식

22년간 지역 봉사 꾸준히 진행

“부처님 가르침 실천이 곧 불교”

“처음 이곳에 오기 전에는 출가를 하려 했어요. 하지만 이곳에 온 후 승속이 따로 없다는 생각과 함께 일에 매진하고 집중했습니다. 힘들다 고되다 그런 생각조차도 별로 들지 않았죠. 그냥 할 뿐입니다.”

하성례 불자의 3천배 수행은 이미 복지관 내에서 유명하다. 3천배를 범어사 대웅전과 백련암 등에서 하루 만에 마치고 돌아와 다시 일에 매진했던 것이다.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복지관 직원이 “하성례 보살님이 안 계시면 안 될 정도다”고 한마디 더 거든다.

양념통이 어디 있는지 숟가락통 위치까지 그리고 다음 날 반찬까지 소소한 것도 다 알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문 영양사와 요리사가 있지만 오래 봉사 활동한 하성례 보살의 진두지휘가 꼭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하순남(74) 불자도 지금 이사장인 명현 스님과의 인연으로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명현 스님께서 주석하시는 양산 천성산 가사암에서 공부를 했어요. 스님께서 어느 날 복지관에 조리사가 있지만 손길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시더군요. 매일 독거 어르신 300분이 와서 식사를 하신다는데 당연히 일손이 부족할 거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할 것도 없이 이곳에 와서 일을 돕고 있죠.”

매일 300명의 무료급식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 이상이다. 도시락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시락 배달을 위해 아파트 곳곳에 다니며 문을 두드리는 것도 이분들은 함께 한다. 하순남 불자는 설명을 이어가며 함박웃음 지었다.

“이 나이에 보람된 일을 한다는 것은 저 자신을 가치 있게 합니다. 어려운 분들이 계신 곳에서 함께 머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게 기쁘지 않다면 그게 불자이겠습니까?”라며 웃음 가득한 얼굴로 다시 반문했다.

사회복지법인 공덕향은 공창사회종합복지관을 운영 수탁하고 있다. 법인 공덕향은 ‘자비와 사랑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 공덕이 내리는 마을, 곧 복지사회를 만들고자 설립되었다’고 스스로를 정의했다.

보살님들에게 이 취지를 알고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알지요”라며 짧게 답한다. “그래서 이렇게 살죠”라고 답하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난다. 아직 인터뷰가 안 끝났다고 붙들자 “미안하다. 복지관에 열무김치를 담아야 해서”라며 급히 자리를 뜬다. 유과 만드는 일을 마치자 마자 그들은 다시 복지관 부엌으로 향했다.

“공덕은 실천하는 것! 그것이 답입니다. 그 말 외엔 사실 별로 할 말이 없어요”라며 손을 흔드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실천을 통한 공덕의 아름다움이 온 세상에 가득하길 발원해 본다.

전법일기

“미안하다 사랑한다”

지난여름, 아직 돌아오지 못한 세월호 인연들을 위해 배를 타고 사고해역 근처로 나가 법회를 본 날이다. 지금껏 기억에 또 기억을 더했지만, 지금부터는 하나씩 덜어내 본다. ‘기억의 무게로 인해 물속에 잠긴 배가 뜨지 못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 이후, 수많은 이들의 무지와 탐욕으로 가라앉은 배이기에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는 우리들의 마음도 혹시나 욕심으로 바뀌어 무게를 더하지는 않을까 염려됐다. 사실 이런 마음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실이 물위로 떠오를 것이다.

사고해역에서 열리는 해상법회는 처음이다. 인양작업에 관심과 힘이 되기 위해 팽목항에서 스무 명 정도 탈 수 있는 배를 빌렸다. 처음엔 더 많은 이들이 타려했지만, “규정입니다”라는 해경의 말을 듣고 나머지 인원은 마음만 싣기로 했다. ‘그래, 세월호도 그렇게 규정대로 했으면 좋았으련만….’

뱃고동소리와 함께 수많은 물음을 싣고, 깊은 침묵으로 잠자고 있는 세월호의 대답을 들으러 일렁이는 파도를 넘었다. 배 한편에 실린 그물코에는 아직 수습되지 못한 얼굴들이 밟힌다.

1시간쯤 달려왔을까? 드디어 저만치 세월호를 인양하려는 바지선이 보였다. 기도소리가 파도소리보다 커지기 시작했다. 가까이 가서 물이 맑으면 뭐라도 보이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지만 물빛은 뿌옇기만 하다. ‘여기 이쯤이겠지….’

선장님은 더 이상 갈 수 없단다. 배가 멈추자 세상이 고요해졌다. 두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렸다. 모든 것이 멈춘 상태에서 눈만 깜빡이고 있기에 주변에 가득한 슬픔이 눈에 닿아 흘러내리는 것 같았다. 다들 숙연해졌다. 눈을 감아 조속하고 원만한 인양을 위해 마음을 모았다. 바다가 쓰레기와 죽은 것들을 육지로 보내는 것처럼 거짓과 위선들도 이제 돌려보낼 때가 왔다. 썩고 부패한 것들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지만 세월호는 아직 죽지 않았기에 그렇게 돌려보내지 않았는가보다. 2년이 넘게 그 차갑고 거친 물속에서도 탐욕의 불이 식지 않았다. 거대한 욕망은 아직도 살아 숨 쉬고 있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렇게 북소리에 맞춰 부르기만 하면 대답할 것 같았고 해결해주실 거라 믿었다. 파도가 거칠수록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세월호까지 닿을 기세로 힘차게! 하지만 대답이 없다. 망망대해에 오직 부르는 이만 있을 뿐!

각자 부르는 이와 한참을 마주하니 파도가 잔잔해진다. 이렇게 파도가 잦아지고 맑아져서 인양이 원만하게 마무리되길 간절히 두 손 모아 기원했다. 그러려면 우리 먼저 물을 흐리지 말아야 되겠다. 다시 바람이 분다. ‘그래 이제 나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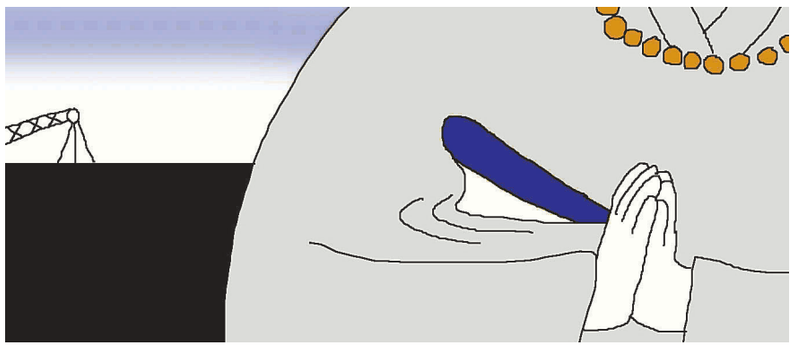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검은 바다는 우리들을 먼저 육지로 돌려보내려 하는 것 같았다. 세월호 인양선 주위를 감싸며 뱃머리를 돌린다. 기도 내내 대답하시느라 지친 관세음보살님을 모시고 희망을 맞을 준비하러 팽목항으로 돌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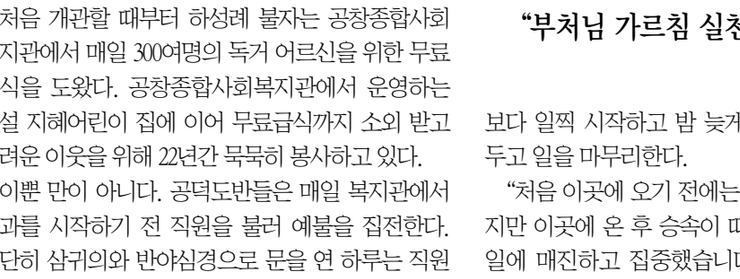
“만일 큰 물속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곧 얕은 곳에 닿게 되느니라.”(관세음보살보문품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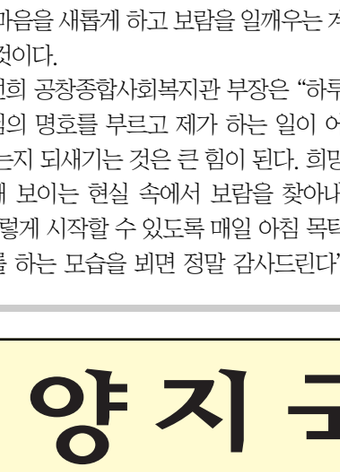
2014년 4월 16일은 수요일이었다. 그 이후 나는 수요일이 될 때마다 ‘오늘은 욕심의 불을 지혜의 물로 끄기 위한 날’이라고 스스로 정해두었다. 이제는 진짜 愁了日(수요일: 근심을 마치는 날)을 맞고 싶다. 서둘러 준비하자. 우리는 세월호의 민낯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는가? 사실 그 욕망들도 우리들이 만든 것임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기억하자. 잊지 말자” 대신 오늘은 욕망과 진실사이에서 이렇게 외친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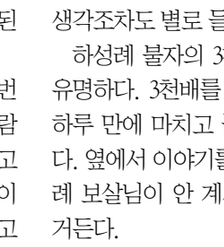
고금 스님(조계종 사회노동위 실천위원)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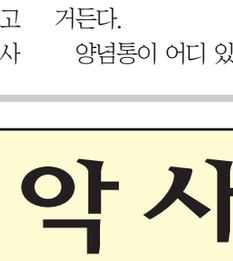




◀ 대북



◀ 태징



◀ 2자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www.yangjikukak.com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아토피의 자가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가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대한불교 조계종 수덕사 만공 · 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대원 문재현 선사님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82권째 서적 출간!



화엄경6권
화엄경 전자책 1권부터 5권까지 무료 공개!!
www.zenparadise.com 에 다운로드 방법 공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은 선문염송 30권, 전등록 30권을 모두 역해하고,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한 혜안으로 화엄경 81권을 완역하여, 대천세계를 손바닥의 겨자씨 들여다보듯 하신 불보살님들의 지혜와 신통으로 누리는 불가사의한 화엄세계를 열어 보였다.



법성게 3개국어판
법성게는 한마디로 화엄경의 핵심부를 훤출히 드러내놓은 게송으로 짧은 글 속에 일체 법을 고스란히 담아 놓았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통쾌한 법성게 법문이 한영중 3개국어로 출간되었다.
도서출판 문젠(구, 바로보인) ☎ 031-534-3373